

이탈리아, '무적함대' 스페인 격파 8강 진출

2대0 완파 4년전 결승전 패배 통쾌하게 설욕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2-1로 역전승 이번 연출

이번에는 무적함대가 빗장수비를 뚫지 못했다.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설욕하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8강에 진출했다.

이탈리아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디펜딩챔피언 스페인과의 유로2016 16강전에서 조르조 키엘리니(유벤투스), 그라치아노 펠레(사우샘턴)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4년 전, 유로2012 결승전에서 스페인에 0-4로 완패하며 우승컵을 넘겨줬던 이탈리아는 설욕에 성공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탈리아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유로 등 메이저 대회에서 스페인을 꺾은 건 1994 미국월드컵 이후 처음이다. 1988년 이후 48년 만에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이탈리아는 내달 3일 독일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유로2008과 유로2012에서 정상에 올랐던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대회 3연패에 도전했지만 이탈리아의 벽에 막혔다. 이탈리아의 베테랑 수비수 키엘리니는 문전 집중력을 앞세워 결승골을 터뜨렸고, 펠레는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의 대결은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예상 밖의 흐름이었다. 이탈리아는 적극적인 압박 수비와 좌우 측면을 흐르는 공격으로 스페인을 공략했다. 스페인은 장기인 패스플레이를 살리지 못했다. 초반부터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탈리아는 활발한 좌우 공략으로 스페인 수비를 흔들었고 전반 33분 만에 기다리던 첫 골을 터뜨렸다.

전반 33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에데르(인터밀란)의 강슛이 골키퍼 손에 맞고 흐르자 골문으로 쇄도하던 키엘리니가 가볍게 밀어 넣었다.

이탈리아가 전반에 1-0으로 앞섰다. 스페인이 후반 시작과 함께 반격했지만 이탈리아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펼쳤다.

후반 10분 에데르가 골키퍼 데 헤아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도 만들었다. 스페인은 데 헤아의 선방으로 실점하지 않았지만 흐름을 가져오기 쉽지 않았다.

후반 막판까지 매서운 공격으로 이탈리아의 골문을 노렸지만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이 버틴 이탈리아의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탈리아는 후반 추가시간에 펠레의 헤기골로 승리를 자축했다.

아이슬란드는 마지막으로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이슬란드는 니스의 스타드 드 니스에서 열린 축구종가 잉글랜드와의 16강전에서 라그나르 시구르드손(크라스노다르), 콜베인 시그토르손(낭트)의 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아이슬란드는 첫 유로 본선에서 8강에 오르며 이번을 연출했다.

다음달 4일 프랑스와 준결승 진출을 두고 맞붙는다.

잉글랜드는 FIFA 랭킹 11위로 우승후보 중 하나로 꼽혔지만 시종일관 저조한 경기력으로 34위 아이슬란드에 달미를 잡혔다.

아이슬란드는 첫 유로 본선에서 8강에 오르며 이번을 연출했다.



이탈리아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디펜딩챔피언 스페인과의 유로2016 16강전에서 조르조 키엘리니(유벤투스), 그라치아노 펠레(사우샘턴)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아이슬란드는 니스의 스타드 드 니스에서 열린 축구종가 잉글랜드와의 16강전에서 라그나르 시구르드손(크라스노다르), 콜베인 시그토르손(낭트)의 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아이슬란드는 첫 유로 본선에서 8강에 오르며 이번을 연출했다.

다음달 4일 프랑스와 준결승 진출을 두고 맞붙는다.

잉글랜드는 FIFA 랭킹 11위로 우승후보 중 하나로 꼽혔지만 시종일관 저조한 경기력으로 34위 아이슬란드에 달미를 잡혔다.

아이슬란드는 첫 유로 본선에서 8강에 오르며 이번을 연출했다.

/김민근기자



우석대학교 태권도 특성화사업단 태권 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 전국 공연

우석대학교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이 28일 판교 현대백화점을 찾아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THE 태권 포스 에이지 오브 태극'을 선보이며 태권도의 가치 전파에 나섰다.

이날 공연은 태권도에 대해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태권도의 새로운 멋과 콘텐츠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석대 태권도특성화사업단은 이번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현대백화점을 돌며 공연을 할 예정이다.

최상진 태권도특성화사업단장은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뿌듯하다"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용소중 유찬규 선수 전국역도대회 3관왕

전주용소중의 유찬규(3학년)선수가 전국춘계역도대회에 출전해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24일까지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한 유 선수는 인상에서 93kg 용상에서 120kg 합계 213kg를 들어 3관왕을 차지했다.

유 선수는 유소에서 역도로 종목에 전향한지 2년 만에 전국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용소중의 김동준 역도감독은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선수로 전복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큰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라며 제자의 메달획득을 축하했다.

한편 같은 학교의 이경복 선수도 69kg급에 출전해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민근기자

여자핸드볼 간판 김은아 "런던 올림픽 부상 아쉬움 리우 금메달로"

한달동안 전지훈련 다녀온 대표팀 실전 모의고사 모두 마쳐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핸드볼의 간판 김은아(28·SK 슈가글라이더스)가 2012 런던올림픽의 부상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은아에게는 4년 전, 런던올림픽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메달의 큰 꿈을 꾸고 나섰지만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

홀로 걸지 못할 만큼 정도가 심했다. 김은아는 결국 대회가 끝날 때까지 관중석에서 동료들을 응원했다. 동메달결정전 상대가 스페인이었던 점이 공교롭다.

한국은 스페인에 저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은아는 "런던에서 처음부터 부상을 입어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매우 컸다"고 기억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운동의 양을 많이 늘렸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보강 훈련도 많이

하고 있다"며 여전히 부상을 경계했다.

이번이 3번째 올림픽이다. 자 스무살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김은아는 "나도 벌써 3번째 올림픽이다. 베이징에서의 첫 올림픽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독님과 선배들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위치였다"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앞서 두 차례 올림픽보다 리우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올림픽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아 입장에서 코트 안팎에서 중심을 잡고, 선취배간 가고 역할을 해야 한다.

김은아는 "언니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팀에 구심점이 부족했다. 경기에서 한 번 무너지거나 이기고 있더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며 "언니들이 오면서 구심점이 생겨 나의 부담이 줄었다. 언니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럽에서 약 한 달 동안 전지훈련을 다녀온 대표팀은 한달정기전

을 끝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모두 마쳤다. 이제 출국 전까지 태릉선수촌에서 체력과 전술을 다진다.

/김민근기자

강정호, 다저스전 2타수 무안타 2볼넷 1득점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지만 볼넷 2개로 두 차례 출루했다.

강정호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4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에 맞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강정호는 2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61에서 0.257(140타수 36안타)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1회말 1사 2루의 찬스에서 볼넷을 골라내 만루 찬스를 이어갔다.

피츠버그는 계속된 1사 만루에서 스티빙 마르테의 우전 적시타와 선 로드리게스의 밀어내기 볼넷, 에릭 크라츠의 2타점 적시타를 엮어 4-0까지 앞섰다. 강정호는 크라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시즌 18번째 득점.

강정호는 5회 2사 1루에서 카츠야의 풀카운트 접전을 벌인 끝에 볼넷을 얻었다.

피츠버그는 다저스에 4-5로 역전패했다. 3연승 행진을 마감한 피츠버그는 40패째(37승)를 당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